

현대 영국 문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듣는다

- 일정: 2013 년 11 월 28 일(목) 13:00 – 17:00
- 장소: 1984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혜원빌딩 1 층 [오시는 길](#))
- 주최: 주한영국문화원, 한국문학번역원

행사 순서 (* 발표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3:00- 13:05	개회
	세션 1 : 한·영 문학출판개관
13:05- 14:00	발표 1. 영국문학출판개관- 영국문화원 문학 디렉터 코티나 버틀러 발표 2. 한국 번역문학시장의 현황 – 밀크우드 에이전시 이주연 실장 발표 3. 한국문학수출의 전망 및 도전과제- 케이엘 매니지먼트 이구용대표
	세션 2: 영국 번역문학계의 해안
14:00- 15:00	발표 4. 문학 출판에서 편집자의 역할- 마리아레스트 대표(맨틀, 팬맥밀란) The complex role of the editor in the business environment (editorial aspects of publishing literature in translation)- Maria Rejt (Publisher of Mantle, Pan Macmillan) 발표 5. 단편 문학. 번역서 시장의 새로운 문을 열다 - 케이티 슬레이드 해외판권매니저, 번역서편집자 (콤마 프레스) Short Fiction in Translation- Katie Slade (International Rights Manager and Translation Editor of Comma Press) 발표 6. 왜 범죄문학인가- 폴 앵글스 편집자 (맥클리호스 프레스) Opportunities for Crime Fiction in Translation- Paul Engles (Editor of MacLehose Press)
15:00- 15:10	휴식 시간
	세션 3. 번역출판계의 전망
15:10- 16:10	발표 7. 신생출판사로서 번역문학을 출간한다는 것 스테판 토플러 대표 (앤드아더스토리스) The wave of innovative new publishers in the Anglophone world- Stefan Tobler (Publisher of And Other Stories) 발표 8. 영국 번역서 시장 진출 전략- 다니엘 세톤 편집자 (푸쉬킨 프레스) How to access the UK Translated-Literature Market- Daniel Seton(Editor of Pushkin Press) 발표 9. 종이책의 미래- 로라 디콘 편집자 (블루 도어, 하퍼 콜린스) How are we adapting to secure the future of book publishing?- Laura Deacon (Editor of Blue Door, Harper Collins)
16:10-16:20	휴식 시간
16:20-16:50	질의 응답 및 토론
16:50-	폐회

세션 1 : 한·영 문학출판개관



발표 1) 영국문학출판개관- 영국문화원 코티나 버틀러 문학 디렉터

발표 2) 한국 번역문학시장의 현황- 밀크우드 에이전시 이주연 실장

발표 3) 한국문학수출의 전망 및 도전과제- 케이엘 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

세션 2: 영국 번역문학계의 해안

발표 4)



마리아 레즈트 (맨틀 대표)

문학출판에서 편집자의 역할

세계적 출판사인 맥밀란의 자회사인 맨틀의 대표 마리아 레즈트가 30년 전 출판업계에서 막일을 시작했을 때 무렵 이후로 출판업계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 키 큰 건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회사들이 거대 기업으로 통합되었을 그 무렵, 양장본 회사와 페이퍼백 회사의 합병은 그 시절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변화는 랜덤하우스와 핑귄이라는 두 개의 거대기업으로 정점을 찍었다. 소수 출판사의 저작권, 시장 점유, 배포, 마케팅 파워 독점은 디지털 자가출판이라는 새로운 현상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리아 레즈트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복합적인 출판 생태계에서 편집자들의 역할이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주장한다.

발표 5)



케이티 슬레이드 (콤마 프레스 편집장)

단편문학, 번역서 시장의 새로운 문을 열다

어느 해 바스 문학 페스티벌에서 콤마 프레스가 두 번에 걸쳐 '상업적인 자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콤마 프레스가 단편 소설을 지속적으로 출판하는 것도 모자라 번역 단편 소설까지 출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였다. 하지만 콤마프레스는 그것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도전의 기회로 삼아 전세계의 작가들에게 단편 소설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케이티 슬레이드는 이번 발표에서 콤마 프레스가 그 동안 특별히 동아시아 문학에 깊게 관여했던 사례들과 중동지역과 유럽 문학에 가졌던 깊은 관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그 지역의 진정한 문화와 정체성, 언어를 소홀하게 다루었던 영국 도서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소수의 해외 소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다루어보고자 한다. 영국 도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상당수의 번역 문학은 출판 공식에 부합되도록 다듬어지거나(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범죄소설의 유행과 같이) '타자'라는 서구의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장되기도 했다(중동 지역 소설의 뒷면에 적힌 광고문구는 '종교적 박해', '테러', '전쟁' 이라는 단어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콤마 프레스는 이런 세계 문학의 편협한 시각에 반기를 들고 단편 형식을 옹호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케이티 슬레이드는 또한 콤마 프레스가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심과 어떻게 단편 소설이 도시 공간과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형성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발표 6)



폴 앵글스 (맥클리호스 프레스 편집장)

왜 범죄문학인가

최근 5년간 영국 도서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번역 범죄 소설의 흥행(주로 스웨덴과 그 외 스칸디나비아 지역 작품)이다. 맥클리호스 프레스의 모회사인 코르크(Quercus)는 이 하위장르로 굉장한 성공을 이룬 스티그 라르손의 출판사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영국 시장에서 스티그 라르손 만큼이나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범죄 소설 작가들이 여럿 있고, 그 외 다른 나라들의 범죄 소설 또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재능 있는 작가들이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 작품의 방향을 범죄 소설로 전환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인기 있는 수입 범죄 소설들이 강한 여성 인물이나 여성 탐정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영국 독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 앵글스는 이러한 영국의 상황을 제시하며, 특정한 문학 장르의 성공은 영국 독자와 출판사로 하여금 장르를 넘어서 그 나라의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다른 경향도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기자들과 서적상 사이에서 '스칸디나비아 범죄 소설 피로증'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소설 장르를 대체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범죄 소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세션 3: 번역출판계의 전망

발표 7)



스테판 토블러 (앤드아더스토리 대표)
신생출판사로서 번역문학을 출간한다는 것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다. 그것은 혁신적인 소설을 위한 영국의 시장이 그렇게 건강하거나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 솔직해져보자. 어디에 내놓더라도 새롭고 혁신적인 글은 수익이 좋지 않다. 번역 문학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소설이나 시를 출판하던 출판사들은 흥미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그만 두거나(대기업이 해온 방식), 베스트셀러를 팔아 신선한 출판물들을 계속 출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거나(어떤 경우 합리적이기도 한 방식), 그런 것들을 출판하며 돈을 잃거나(보통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그런 출판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선다. '앤드아더스토리'가 출판하는 소설의 70%는 번역서이다. 스테판 토블러는 부자도 아니고 범죄 소설류를 잘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출판사들과는 다른 모델이 필요했다. 새로운 모델이란 무엇인가? 독자를 주류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이 하고 있는 일이며 크라우드펀딩의 최초 모델이다. 2011년 출판된 앤드아더스토리의 첫 번째 책은 2010년 구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은 크라우드펀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구독자들은 출판사가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출판 전 미리 도서구입비를 지불하고 출판사는 그들을 위한 특별 클럽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클럽의 회원수가 벌써 1000명이 되었다. 앤드아더스토리는 클럽의 회원들은 출판의 과정에 참여시킨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설 출판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모델에 대하여 '페이레네 프레스(Peirene Press)'와 베를린에 기반을 둔 '프리슈앤코(Frisch & Co)'에 대한 이야기도 다룰 것이다.

발표 8)



다니엘 세톤 (푸시킨 프레스 편집장)
영국 번역서 시장 진출 전략

다니엘 세톤은 영국의 번역 소설 출판 현황과 영국의 출판사들이 번역 문학을 출판하는 데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또한, 영국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을 출판하려고 하는 한국의 에이전트와 출판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번역 소설 전문 출판사들 몇 군데를 제안하고, 영국 출판사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서를 구성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시장을 겨냥한 제안서를 만드는 방법, 온라인 상에서 책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샘플 번역을 이용하는 방법, 가능한 번역 지원금 출처를 강조하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발표 9)



로라 디콘 (블루 도어 편집장)

종이책의 미래

독자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책이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으로도 여전히 이용 가능한 매체임을 확인시킬 수 있을까? 로라 디콘은 앤더스 드 라 모뜨(Anders de la Motte)의 스웨덴 스릴러 시리즈물인 '더 게임 트리올로지(*The Game Trilogy*)의 혁신적인 출판 전략을 소개한다. 출판의 모든 과정에서 출판사는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일상 생활에 연결 짓고자 했고, 그 결과로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사용하여 지리위치 전자책(geo-location ebooks)을 개발했다. 이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서술된 내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이 지리위치 전자책 개발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게임이나 영화 산업에 이용되던 기술을 더욱 폭넓은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 양쪽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